

1장

원불교 2세기와 교화구조개선

□ 제1발표 교당교화 사례를 통한 교화 과제와 제언

- 발표 : 훈타원 박성연 교무(서울교당)
- 질의 : 홍산 오도철 교무(신촌교당)

목 차

I. 들어가는 말

II. 서울교당 교화사례(교화 전략)

1. 맥을 잇는 조직교화

1-1 조직의 사명과 목표 이해

- ① 역사적 맥 파악(교당현황 파악)
- ② 정책적 맥 파악(교단정책, 교구정책 파악)
- ③ 교도와의 공감대 형성
- ④ 역할 인식과 참여확대

1-2 맥 잇는 조직교화의 실천 사례

- ① 비전 수립과 발전위원회 구성
- ② 백년성업기도의 힘으로 가족교화까지
- ③ 『서울교당 93년사』 발간
- ④ 창신동 성적지 매입

2. 진리와 교법에 대한 맥

2-1 기도

- ① 서울교당 기도 사례
- ② 기도와 연계한 교리공부 및 교화단 강화
- ③ 기도와 가례실천

2-2 훈련

- ① 재가교역자훈련 및 교화협의회 워크숍
- ② 교당스테이와 4정진운동
- ③ 교도훈련(4종의무 훈련, 법위훈련)

2-3 교회

- ① 3040법회 개설과 원기 100년 100명 입교식
- ② 이벤트를 이용한 교회
- ③ 지역사회 교회

III. 교당 교회를 위한 과제와 제언

1. 지역사회와 연계
2. 가족교화 실천
3. 법회 개선
4. 출가교역자 자질 향상
5. 재가교역자 역할 확대

교당교화 사례를 통한 교화 과제와 제언

훈타원 박성연 교무(서울교당)

I. 들어가는 말

원불교의 2세기를 출발하는 시점에서 우리 모두는 진지하게 현재의 교화 구조를 점검하고, 교화의 새로운 동력과 미래의 희망을 찾기를 염원하고 있다. 이러한 염원으로 본 발표자도 이 세미나에 동참은 하였으나, 아쉽게도 깊은 통찰력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교단의 과제를 파악해서 대안과 희망을 제시하기에는 발표자가 남달리 특별한 역량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고백한다.

다만 발표자가 가진 교화의 자산이 있다고 하면 20여 년 동안의 현장교화의 경험이다. 서울교당에서의 교화사례를 들여다보는 것이 원불교 교당 교화의 활성화와 미래 교화의 희망을 찾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서울’이라는 지역은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행정, 문화, 경제의 중심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공간이다. 대략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서울을 중심으로 밀집해 있다. 또, 서울은 국제적 도시의 면모를 완벽히 갖추고 있다. 국력의 신장과 함께 한국사회는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많은 교류를 해 왔고, 서울이 그 교류의 중심이 되었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 대한민국의 문화는 서울에서 시작해서 확산되고 있다. 서울의 문화와 서울사람들의 삶의 패턴을 읽는다면 한국사회의 흐름을 알 수 있고, 세계의 흐름도 읽는 것이 가능하다.

또, 주목할 것은 ‘서울교당’의 역사적 전통성이다. 서울교당은 원기 9년 소태산 대종사의 상경으로부터 시작하여 오랜 전통을 지닌 교화현장이다. 서울교당 교도들 또한 서울교화의 종가집으로서의 전통에 깊은 역사적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교화의 방향을 제시할 때에 미래의 트렌드만 읽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원불교적인 전통을 계승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서울교당은 한국사회에서 변화의 최첨단인 서울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원불교적 전통의 계승에 노력하는 교도들을 대상으로 교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믿음에 기초해서 본 발표자는 문화의 중심이자 오랜 교화의 역사를 지닌 서울 교당에서의 7년간의 교화 경험을 부족하지만 조심스럽게 소개해본다. 서울교당의 교화사례를 통해 교당교화의 방향과 과제를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II. 서울교당 교화사례(교화 전략)

1. 맥을 잇는 조직교화

성공적인 교화를 위해서는 ‘조직화’가 중요하다.

초창기 원불교의 성공적 성장의 배경에는 조직을 잘 활용한 ‘조직교화’의 힘이 있었다. 소태산 대종사는 깨달음을 얻은 후 제일 먼저 그 깨달음을 전달하는 교화의 모체로 구인단원을 조직하였다. 이러한 전통으로 인해 원불교는 교당마다 교화단 조직, 회장단 조직, 교화협의회 조직 등 조직이 잘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인 ‘조직화’만으로는 ‘조직교화’에 성공할 수 없다. 소태산 대종사는 구인 단원을 바탕으로 금주금연 저축조합운동, 방언공사, 법인기도 등의 활동을 통해 조직에 ‘사명’과 ‘목표’를 부여하여 살아있는 조직으로 완성하였다. 이처럼 ‘조직화’는 교화단, 회장단 등의 외형적인 교당 조직을 구성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직에 ‘사명감’ ‘목표의식’을 부여하고 경우에 따라 ‘사명’ ‘목표’에 따라 조직을 재구성하는 것까지이다.

그래서 발표자가 서울교당에서 조직 교화를 시작하면서 가장 큰 테마로 생각했던 것이 맥을 잇는 교화였다. 교당이 현재 놓여있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또는 교단적인 교화 정책 속에서 어떠한 위치에 놓여있는지 그 ‘맥’을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 교당, 교당내 조직, 교도 각자가 원불교라는 전체 조직의 구성과 각자의 위치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할 수 있다. 이 인식이 명확해야 각자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명확해지고, 역할에 대한 인식이 명확해 질 때 적극적인 참여가 시작된다. 따라서 ‘조직교화’를 위해 교무는 교화자로서 제일 먼저 교도들과 교당내 각 조직이 ‘맥’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리고 읽어낸 ‘맥’을 통해 조직의 사명을 이해하고, 그 사명과 사명에 따른 목표를 조직에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1-1 조직의 사명과 목표의 이해(맥을 읽고 맥을 잇기)

발표자는 서울교당에서 교화를 시작하면서 이 ‘맥’을 읽고 있는 일을 조직교화에 접근하는 핵심적 선결과제로 보고 노력했다. 그 과정은 ‘맥을 읽어서’ 조직의 사명을 이해한 뒤 그 사명에 따라 구체적 목표를 설정해 ‘맥을 잇는’ 과정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더 세분하면 조직의 사명을 이해하는 ‘맥 읽기’에는 ‘역사적 맥 파악’과 ‘정책적 맥 파악’이 있고, 사명과 목표를 부여하여 ‘맥’을 잇는 과정으로 교도와의 ‘공감대 형성’과 ‘역할 인식과 참여 확대’의 과정이 있다.

① 역사적 맥 파악(교당 상황 파악)

가장 먼저 교당의 역사적 맥을 파악하려고 했다. 교당에 부임해서 제일 처음 한 일이 연혁을 통독하는 일이었다. 교당이 놓여있는 역사적 상황을 이해하고 시대의 흐름 속에 부각되는 현재의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서였다. 서울교당의 경우에 있어서는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친히 교화의 문열이를 하셨고, 원불교에서 두 번째로 설립된 교당이며, 교단의 쟁쟁한 재가출가의 선진님들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역사 있는 교당이라는 것을 알았다.

또, 서울교당에 부임해서 1년 동안은 새로운 교화를 시도하기보다 교당의 교화 환경을 관찰하면서 서 교도들의 성향과 법위분포, 교당 유공자, 각종 회계 및 출석관련 지표, 법회를 포함한 각종 행사의 전례 등을 통해 교도들의 현 상황과 과거의 성과들을 파악했다. 이것은 교당의 정책적 맥을 파악하는데도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흐름을 파악한 다음에는 부임기간동안 실현해야 할 구체적인 역사적 사명을 명확하게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특히 매일 아침 좌선이 끝나면 법당에 있는 소태산 대종사님의 영정을 바라보며 ‘제가 서울교당에서 이루어야할 역사적 사명이 무엇가요?’라는 질문을 끝임 없이 던졌다.

② 정책적 맥 파악(교단 정책, 교구 정책 파악)

개인적으로 오랜 교화부 근무와 전산개발실 근무를 통해 교단 정책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었고, 이 경험이 교당교화 현장에 나와서도 교단의 교화 행정과 정책을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서울교당에서도 교화의 방향과 주제를 정할 때 언제나 종법사님의 신년법문, 교정원의 교화정책, 교구의 교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정책적인 맥을 이어가는 것은 신앙적으로는 ‘법통’을 세우는 것이기도 하여서 교도들에게 사명감을 부여하고 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효과가 있다.

‘정책적 맥’을 읽을 때는 교단의 정책이나 교구의 정책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당이 매년 실시하는 행사, 교무와 재가교도들의 관계, 역할 분담 등도 중요한 정책적 흐름으로 생각하고 파악해야한다. 그리고 교무 개인의 방식을 주장하기 보다는 정책을 이어가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

③ 교도와의 공감대 형성

교당에서 역사적 맥과 정책적 맥을 이해하고 이로부터 사명감과 목표의식을 갖는 것은 출가자나 몇몇 사람들 사이에서 그칠 일이 아니고 교도들과 함께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일이다. 소통의 과정을 통해 전교도가 함께 사명과 목표에 대해 공감하고 나아가서는 집단적 신념화를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식은 일단 기존 ‘회장단’ ‘교화협의회’ ‘단장을 중심으로 한 교화단’과 같은 교당 조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먼저 대표성을 갖는 소규모 조직 내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후 이것을 조직전체로 확대하는 것이다.

서울교당에서의 사례로는 원기 96년 신임회장 선출 후 삼발재에서 봉고기도를 올렸다. 이 과정 통해 먼저 회장단에 사명감을 부여했고 교당의 나아갈 길에 대한 공감을 통해 신념화했다. 그 후에 이어지는 100일 기도, 가족초대법회, 3040법회 등을 통해 교도전체로 인식을 확대하는 불씨가 되었다. 자세한 진행 과정은 밑에서 더 자세히 소개하기로 하겠다. 그 밖에도 매월 한 번씩 있는 단장훈련과 교화협의회를 통한 교화 정책 공유 등이 조직을 활용하여 공감대를 확대해가는 좋은 경로가 된다.

교도들과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도가 모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 서울교당에 가장 적극으로 활용한 방법은 기도이다. 기도는 공감대 형성 뿐 아니라 신앙을 통해 집단적 신념화하기가 수월하다는 점에서 좋은 방법이다. 여기에 덧붙여 공감을 얻으려는 사항에 대한 학습을 병행하면 더 좋다. 그 밖에 주제에 따른 특별 법회나 이벤트를 실시하여 교도들의 호응을 끌어내기도 하였다. ‘기도’와 ‘이벤트’와 같은 방법론과 구체적 사례에서는 뒷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도록 하겠다. 서울교당에서 교도전체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조직을 재편한 실례로는 ‘비전수립과 발전위원회 활동’이 있다.

④ 역할 인식과 참여확대

일단 조직의 사명과 목표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지면 교도들이 그 사명을 이루려는 목표에 적극성을 띠게 된다. 그 다음에는 조직을 잘 정비하여 자연스럽게 각자의 역할인식과 참여확대로 이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조직을 적절하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도들은 회장단, 고문, 교화협의회, 교화단 등 역할 조직에 소속됨으로 각자의 역할을 인식하게 되고 다시 이 역할 인식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얻고 적극성을 띠게 된다. 소위 말하듯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것이다.

조직체계가 완비되면 그 다음은 각 역할에 대해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서울교당에서는 ‘교당재가교역자훈련’ ‘교화협의회 워크숍’ ‘단장훈련’ ‘교당스테이’ 등을 통해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진다.

1-2 맥 잇는 조직교화의 실천 사례

- 백년성업기도의 힘으로 가족교화, 창신동성적지 매입, 서울교당93년사 발간, 비전수립과 발전위원회 활동

서울교당에서 맥을 잇는 조직 교화를 실천한 구체적인 사례로는 ‘백년성업기도의 힘으로 가족교화까지 이어간 일’ ‘창신동 성적지 매입’과 ‘서울교당 93년사 발간’ ‘비전수립과 발전위원회 활동’ 등이 있다.

① 비전 수립과 발전위원회 구성

원기 95년 부임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교당현황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①연혁을 통독하고 ②원티스 및 기타문서를 통해 교화지표를 찾아보고 ③교도들과의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 교도상황을 파악했다.

그 다음은 이 자료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연마하여 역사적인 맥락과 현재의 교단 정책적 맥락 속에서의 교당의 교화 방향과 사명에 대한 명확한 밑그림을 그리고 이것을 교도들에게 설득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하고 신념화하였다.

그 다음 과정은 교도 간에 교당 교화 계획 수립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었다. 법회 시간에 총무부 역량개발교육팀의 전자군 교무를 초청하여 전 교도를 대상으로 ‘비전수립’ 교육을 실시하여 교도들에게 비전 수립의 필요성을 주지시켰다.

이어서 원기 95년 8월 29일 바로 비전수립위원회를 선정하였다. 비전수립위원은 교화협의회임원과 30대, 40대, 50대 각 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자를 한 명씩 선별하여 구성하였다. 비전수립위원회를 구성할 때 중요한 것이 대표성이다. 교도들 각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되지 못하면 교도들의 관심이 떠날 수밖에 없다.

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이어서 비전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그 첫 단계가 교도들의 요구를 파악하는 일이었다. 설문지 등을 통해 교도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요인회에서 그 요구를 분석하였다.

이어서 비전수립위원회를 중심으로 1년간 30여회의 지속적인 회의와 중간에 원기 95년 11월 14일에는 법회를 통해 비전 추진 내용을 발표하고 전교도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중간점검을 통해 구체적인 비전을 수립하였다.

원기 96년 7월 24일 임시 교당교의회에 비전추진 현황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승인된 서울교당 비전은 8월 6일 하이원빌리지에서 개최된 워크숍에서 다시 한 번 검토되어 원기 96년 8월 7일 일요법회에서 교도들에게 공개하였다.

이어서 8월 14일 회장단 및 추진위원회들과 함께 중앙총부 영모전에서 비전달성기 원봉고식을 올리고 경산 종법사님을 배알하였다. 그리고 8월 21일 법인절을 맞아 법인절 기념식 및 비전선포식을 거행하였다.

이렇게 수립된 비전은 원기 100년까지 4년간 추진되었으며, 원기 100년에 바로 이어서 ‘발전계획수립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발전위원회’에서는 4년간의 비전 추진에 대한 평가를 한 후 그 추진의 동력을 이어받아 앞으로 교단 3대말인 원기 108년까지의 서울교당의 발전과제를 도출하였으며, 1차(원기 101년~104년), 2차(원기 105년~108년)로 나누어 추진할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였다.

비전이 수립, 그리고 뒤이은 발전계획수립 이후로도 연도별로 수립한 각 해의 비전달성 중점 교화정책을 교화협의회를 중심으로 설문과 매년 1회 비전추진워크샵을 통해 계획들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비전수립위원회’ 구성에서부터 ‘발전위원회’까지 진행하는 과정에는 교무의 역할을 최대한 축소하고 재가교도가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활동을 하도록 하였고, 비전이 완성된 후 점검도 교화협의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② 백년성업기도의 힘으로 가족교화까지

처음 서울교당에 발령받아 왔을 때 원불교 백년성업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 이미 각 교당에서는 원불교 100년 성업봉찬을 위한 기도를 올리고 있었지만 서울교당은 아직 기도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었다. 교단의 주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교단의 큰 흐름에 합력하는 것이 모든 교도들의 역할이라는 당연한 명분으로 우선 새로 선출된 회장단과 함께 삼밭에서 1박을 하며 백년성업에 동참할 것을 다짐하는 기도를 올렸다. 교당에 돌아와서는 서원의 불씨를 이어간다는 의미로 삼밭재에서 기도한 회장단이 독경단으로 함께 하여 100년 성업기도를 시작하였다. 이 기도는 원기 96년 11월 13일부터 원기 97년 2월 20일까지 매일 새벽 5시와 오전 10시 30분 두 차례에 걸친 ‘감사와 서원의 100일 기도’로 이어졌다. 이 100일 기도

중에는 교당을 개방하고 릴레이로 교도들이 명단에 올린 가족들과 함께 교당에 와서 하루만큼은 기도를 담당하여 이어가는 방식으로 교도들의 동참과 가족교화와의 연계를 이끌어냈다. 이 기도에서는 각 가족이 공통 기도문 외에 각 가정에 맡는 기도문을 준비하고 차율적으로 의식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 기도를 통해 교도들의 마음이 차츰 교당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다음에는 가족릴레이기도로 진작된 분위기를 이어서 4월 22일 대각개교절을 앞두고 대대적인 가족초대법회를 열었다. 이 초대법회의 효과는 이어서 법회 출석과 3040법회 창립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이와 같이 교단의 기운과 함께하여 그 맥을 이어가는 조직적인 교화로서 교도들과 교도들의 가정에 이르기까지 원불교 교도로서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심어주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③ 『서울교당 93년사』 발간

원기 95년 서울교당에 부임하자 바로 연혁을 통해 서울교당이 역사 깊은 교당이고 교단의 소태산 대종사님의 발자취는 물론 쟁쟁한 선진님들이 거쳐 가신 성적지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역사가 정리되어 발간되지 못했다는 사실 또한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당시 회장단에서도 우리교당 역사편찬이 교당의 오랜 숙원사업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원기 60년부터 몇 차례에 걸쳐 역사를 편집하려는 노력은 있었으나 당시의 상황으로 무산된 전력이 있었고 서울교당의 교도들도 일부교도의 역사 편집 발간에 대한 의욕의 표시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교도에 있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요인들을 중심으로 평소에 지속적으로 역사 편찬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과 공감을 얻어오다 부임 다음해 원기 96년 12월 14일에 현 회장을 포함한 역대 회장고문단 모임에서 서울교당 역사를 편찬하기로 결정하였다. 다시 그 다음해 원기 97년 7월 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 집필자를 확정한 후 편찬위원회를 중심으로 몇 차례 회의를 통해 구체화해 갔다. 교도전체의 공감을 얻기 위해 원기 98년 10월 일요법회를 통해서 집필자 오정행 교무를 모셔서 발간 준비를 위한 법회를 보았다. 원기 99년 법인절에는 역대교무시대별 사진전을 통해 다시 교도들의 공감을 얻었다. 원기 100년부터는 교도들로부터 회고담을 비롯한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해서 원기 101년에는 실무위원 중심으로 매주 회의와 모임을 통해 발간을 진행했다. 또 집필자인 오정행 교무와 교당요인들이 모여 2차례 편집회의 갖고 10월에는 봉정식 준비 위원을 위촉하였고 10월 26일부터는 3일간 교도들의 참여아래 가편집된 책을 점검하는 통독회

를 가졌다. 최종적으로 11월 25일 최종 감수하고 인쇄하여 원기 101년 12월 4일 봉정식을 가졌다.

④ 창신동 성적지 매입

창신동 성적지 매입도 서울교당의 역사성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이후 서울교당 최초의 부지이자 소태산 대종사님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성적지를 매입해야겠다는 개인적 신념을 확고히 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교도들에게 그 필요성에 대한 여러 번 언급했다. 또, 교도들과 서울성적지 순례를 기획하여 창신동을 포함한 성적지를 돌아보기도 하였고 성적지 매입에 보태기 위해 서울교당에서 자금을 마련하자는 구상에 대한 여러 차례 제안하기도 했다. 더불어 원기 101년부터는 교도들의 역사를 인식을 깊게 하기 위해 매달 월초기도 후 서울교당 역대 선진님에 대한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고 법회를 통해 역대 선진님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이 토대가 되어 알게 모르게 교도들에게 역사 깊은 서울교당 교도로서의 자부심이 생겼고 성적지 매입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공감대 형성이 있었기 때문에 원기 101년 3월 창신동 성적지가 부동산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에 긴급하게 교화협의회에서 논의하고 일반법회에서 합의를 얻은 결과 서울교당의 자력으로 창신동 성적지를 매입하기로 수월하게 결정할 수 있었다. 이어서 4월 3일 교화협의회를 통해 매입을 최종결의하고 4월 7일 계약하여 6월 14일 매입을 완료할 수 있었다. 매입 이후에는 6월 26일부터 7월 16일까지 서울 창신동 매입 감사 21일 기도와 이 기간 동안 서울교당의 역사와 관련된 ‘서울교화이야기’를 함께 봉독함으로써 교도들의 역사 인식과 성적지 매입에 대한 공감, 자부심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성적지 매입과정은 교도들에게 역사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심어주었고 불사에 적극 참여하는 등 교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2. 진리와 교법에 대한 맥

교화는 내가 먼저 진리와 교법에 대한 맥을 대고 그 맥을 사람들에게 이어주는 것이며, 이를 통해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스승님들의 호령 속에서 함께 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교당에 부임을 하게 되면 신앙과 수행의 중심을 잡기 위해 기도와 훈련을 반드시 하였다. 기도를 통해 진리적인 종교의 신앙을 체험하고,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 교도들이 교법에 대한 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였다.

2-1 기도

교당에 부임하면 먼저 교도들이 신앙의 줄을 잡고 서로 한 기운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하면 좋다. 특히 교당이나 교도들 간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더 필요하다. 이 때 많은 교도들이 함께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방향이 구체적이고 선명하며 실천적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계속해서 유지되기 어렵고 교도들과 한 마음이 되어 기도를 진행하기 어렵다. 따라서 기도는 그 때의 사회와 교단과 교당의 상황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주제를 잘 선정해야 한다. 먼저 교무진이 상의하여 기도의 주제를 정하고, 회장단과 소통하여 의결한 뒤, 다시 교화협의회와 단장 훈련 등을 통해 기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

또, 기도를 오래 하다보면 일상성에 떨어져 정성심이 약해질 수 있으므로 그 때 그 때 기도의 형식과 방법을 바꾸어 테마기도로 구성하는 것도 좋다.

① 서울교당 기도 사례

서울교당에 부임한 해인 원기 95년, 서울교당은 그간 온갖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신축불사를 이루어내긴 했으나 교도들은 피로가 누적되어 응집력이 약화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 때문인지 다른 교당에서는 이미 원불교 100년 성업봉찬을 위한 기도가 진행되고 있었으나 서울교당은 아직 결제도 못하고 있었으므로 100일간의 성업 봉찬 기도를 우선 진행하기로 했다. 보다 뜻 깊은 기도를 올리기 위해 교도 회장단과 함께 삼밭재 기도실에서 1박을 하며 100년 성업에 동참할 것을 다짐하는 기도를 올렸다. 그리고 삼밭재에서 불인 서원의 불씨를 교당으로 가지고 돌아와 교도들과 함께 100일간의 감사 서원 기도를 시작하였다.

이 기도를 통하여 성업에 인연을 맺어주고 싶은 주위 인연들의 명단을 함께 올린 결과 기도명단이 천여 명에 이르렀으며, 형식은 가족릴레이 기도로 하였더니 교도들의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지고 가족교화로도 연결되었다. 또, 기도 정성을 통해 8천여만 원의 기도 성금이 모아져 원불교 100년 기념 성업봉찬회에 합력하였다.

이렇게 100일 기도로 출발한 교당 기도는 이후 기간을 줄여 서원 정진을 위한 50일 기도로 바꾸어 진행이 되다가, 최근에는 기도가 일상성에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21일간의 테마기도(서원 정진을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교단을 위한 기도, 창신동 경성지부 터 매입 감사기도 등) 형태로 변형되었다. 이렇게 스스로 서원 정진하는 기도, 가족과 함께하는 기도, 공부하며 성장하는 기도, 교단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 신앙적 분위기가 성숙되어지고 교당과 교무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자 그 속

에서 교회도 차츰 활성화되어 나가기 시작했다.

② 기도와 연계한 교리공부 및 교화단 강화

기도 기간에는 기도만 따로 진행하지 않고 항상 교당일정과 행사와 연계하여 1년의 계획을 세운다. 서울교당에서의 예를 보면 원불교 개교 100주년인 원기 101년에 ‘백년성업 대정진 100일 기도’, ‘100주년 기념대회 성공을 위한 21일 기도’, ‘100주년 기념대회 인연불공을 위한 21일 기도’, ‘창신동 성적지 매입 감사기도’를 기획하여 100년성업 봉찬에 더욱 기운을 합하였고 다시 이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여 교당의 자부심을 더욱 드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서울교당에서의 기도는 항상 교리공부를 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도 기간 동안 정전공부, 정전암기, 대종경 공부, 교사 공부, 서울교당 역사 공부 등을 함께 하고, 기도가 끝난 후에는 독경대회, 교리퀴즈대회, 정전암기대회 등으로 기도의 매듭을 지을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였다. 기도의 중간에는 기도 시 공부하는 교리에 대한 특강을 준비하여 교도들이 교리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흥미를 유발하는 노력을 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진리에 대한 맥을 대고 교법에 대한 신심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교리퀴즈대회와 독경대회, 교리암송대회는 교화단 위주의 행사로 진행되었다. 심사기준으로 교화단원 드레스코드, 단원간 합력, 참여도에 놓은 점수를 두어 교화단회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단원들이 서로 소통하게 했고, 함께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 기도시작 전부터 미리 공지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은 교화협의회 임원과의 소통, 단장들과의 소통을 통해 미리 준비 했기에 가능했다.

③ 기도와 가례실천

서울교당에서 꾸준히 진행 되어 온 기도문화는 가례실천으로 이어졌다. 그 동안 상장 의례만 교당에서 실천하고 경사가 있을 때는 교당에 공양만 하던 문화가 출생, 돌, 회갑, 칠순, 결혼 등의 경사가 있을 때 법신불 전에 봉고를 올리는 문화로 바뀌었다. 이는 계속해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도의 분위기를 이어 온 공덕이 크다. 그래서 현재는 출생이나 돌, 생일, 결혼, 회갑, 칠순 등 집안의 큰 일이 있을 때 언제나 먼저 교당에 와 함께 기도를 올리는 문화가 정착되었다. 이는 대종사님의 교법으로 가정을 운전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좋은 방법이며, 감사와 은혜를 깊이 느끼

는 계기가 되고, 신심과 공부심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뿐만 아니라 가례실 천을 통해 가족교화의 계기를 마련하는 좋은 시발점이 될 수 있으며, 가족들이 원불교에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효과를 나타냈다.

2-2 훈련

종교에서 훈련은 대중을 종교의 교법으로 단련시켜 인격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원불교에서는 법신불 일원상의 진리를 표준하여 삼학으로써 인격을 향상시키기 위해 훈련법을 제정하였고, 훈련을 통해 각자의 수행을 점검하고 지도인의 감정을 받도록 하였다. 훈련을 해야 교도들이 교당의 참 주인으로 거듭나게 되므로 훈련은 매우 중요하다.

서울교당에서는 ‘재가교역자훈련’, ‘교화협의회 워크숍’, ‘교당스테이와 4정진운동’, ‘교도훈련(법위훈련, 교도4종의무훈련)’ ‘신입교도 훈련’ 등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 수행의 체를 잡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연스러운 문답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었다. 또, 교당의 주인으로써 교당에 애정을 갖고 교당의 전반적인 교화상황과 운영방향을 공유하여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하였다.

① 재가교역자훈련 및 교화협의회 워크숍

원불교의 인사정책은 순환제이기 때문에 현재 교당교화가 출가교역자 중심으로 이어가는 상황에서 교화 방향의 지속성을 유지하기는 어려움이 많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가교역자들의 역할 확대와 확실한 자리매김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재가교역자들의 역할인식확대를 통해 교화체제를 갖추기 위해 매년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재가교역자훈련은 매년 연초에 시행되며 서울교당 발전계획 및 교화방침에 따른 그 해 중점교화를 주제로 하여 핵심과제를 찾고 실천할 수 있도록 훈련한다. 재가교역자훈련을 할 때는 미리 회장단, 교화협의회 임원들과 함께 재가교역자훈련을 어떻게 진행해 갈 것인지에 대해 토의하여 주제를 정하고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이러한 토의에서 훈련에 이르기 까지 전반적인 훈련 내용을 교무가 모두 주관해 가는 것이 아니라 회장단과 임원들이 훈련의 주축이 되어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교무는 큰 틀에서 방향만 제시하고 결제식과 해제식을 통해 매듭만 짓고, 교도들이 보다 자유롭게 토의하여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예를 들면, 원기 102년 재가교역자 훈련에서는 원기 102년 중점교화 ‘가족교화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의 주제를 가지고 훈련을 하였다. 주제를 실천할 방법으로 ‘가족교화’ ‘교화단 활성화 및 속 깊은 마음공부’ ‘은혜나눔’ 3가지를 놓고 회화하여, ‘원기 102년 우리의 약속’ 7가지(1. 일원상 합동 봉안식 2. 가족을 위한 설명기도 작성하여 조석심고 모시기 3. 하루 10분 이상 좌선 또는 염불하기 4. 단회시 단원 모두 정기일기 1편 발표하기 5.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문화 실천하기 6. 봉사활동을 위한 재능 준비 7. 전교도 장학금 월 천 원 이상 후원하기)를 도출하고 그것을 지키기로 다짐하였다.

교화협의회 워크숍은 연초 재가교역자 훈련을 통해 도출한 계획들을 연중에 점검하고 후반기 계획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 교화협의회원들과 함께하는 훈련이다. 이러한 중간 점검을 통해서 장기적인 계획과 단기적인 계획을 부각시키며, 교당의 교화방향과 계획을 다시금 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소통과 합력의 창구가 된다.

재가교역자 중 단장훈련은 매월 한 차례 단장들의 공부심 증진과 교화력 배양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다. 단장들의 공부심 증진은 곧 단원들의 공부심 증진과 교당의 공부분위기 조성으로 이어진다. 이를 위해 단장 훈련에는 반드시 어떻게 교화단회를 운영해 가는가에 대한 실질적인 훈련과 시연을 통해서 교화단공부가 일관성 있게 진행되도록 하고 있다. 항단장이 단장들의 역할과 진행 방법 등에 대해 시연하고 단장들이 일기발표를 한 후 질문과 문답의 시간을 가진다. 교리공부와 일기감정, 문답 감정을 통해 단장들 스스로 공부에 대한 신심이 생길 수 있도록 독려하고, 단원들을 어떻게 지도해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연마할 수 있도록 단장훈련을 진행한다.

② 교당스테이와 4정진운동

교당스테이는 교당 생활의 체험을 통해 교도들 스스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기초를 쌓는 법의 훈련이었다. 원기 97년부터 시작된 1박 2일 간의 교당 체험은 연말평가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얻어 낸 정도로 인기가 높았고 교도들 스스로가 교당의 주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다. 참가자들은 토요일 저녁 6시 30분 교당에 집결해 교당에서 준비한 선복을 갈아입고 외부와 단절한 후, 우리 교당 둘러보기, 나의 신앙생활 회화, 참 나를 찾는 시간, 유무념 공부 문답감정하기, 교당에서의 아침저녁 일과 함께하기, 1일 교당 체험 감상담 나누기 등으로 꾸며졌다. 이러한 교당 체험을 통해 교도들은 한 번도 보지 못한 교당의 구석구석을 일일이 둘러보며 교당에 대한 애정을 키워 나갔으며, 실상에서의 신앙 수행 생활의 체험은 물론 개인별 맞춤형 유무념 공부 지도를 통해 더욱 성숙해 질 수 있었다. 특히 교도 상호간 이해의 폭이 넓어져 속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법연이 더욱 돈독해졌다.

처음에는 각 단별로 돌아가면서 진행이 되던 교당스테이는 이후 단장단, 남자단, 여자단으로 자유롭게 신청하여 4정진운동을 주제로 하는 교당스테이로 발전시켰다. 원기 102년에도 새로운 교화단 편성을 계기로 단별교당스테이를 추진할 것이다.

③ 교도훈련(4종의무 훈련, 법위훈련)

‘교도 4종의무 훈련’은 교도들의 4종의무 실천여부를 확인하여 원불교 교도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는 훈련이다. 법회시간에 하는 이 훈련에서는 4종의무가 무엇이며, 왜 중요한지에 대한 주제강의와 4종의무를 스스로 실천하고 있는지 또는 앞으로 어떻게 실천해 갈 것인지에 대한 4개조의 조별회화를 통해 교도로서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4종의무 훈련을 통해서 교도들이 다시 초심을 챙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러한 결과 법회 출석수와 보은 현공금의 성장이 있었다.

법위훈련은 법위 사정의 해를 맞이하여 실시하는데, 원기 101년에는 예비법강항마위 훈련을 실시하였다. 예비법강항마위 대상 30명 중 29명이 참석하여 교당에서 1박 2일 훈련을 하였다. 훈련은 예비법강항마위 공부표준에 대한 주제 강의와 ‘법위 사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법위사정에 대한 규정 안내)’ ‘공부 실적서 작성’을 통한 나의 공부 표준 회화 등으로 이루어졌다. 뒤이어 질의문답 시간을 통해서 그 동안 궁금했던 사항들에 대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 법위훈련을 통해서 스스로 신앙과 수행 정도, 신심 공심 공부심 정도를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고, 법위 사정의 기준과 행정절차를 모르는데서 올 수 있는 오해를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원기 98년 정식법강항마위훈련은 법위등급법에 기준하여 정항의 공부 표준에 대한 강의와 ‘성리 연마와 생사해탈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교당에서 법사로서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회화로 훈련을 진행하였다.

올 해는 법위사정의 해를 맞이하여 전 교도를 대상으로 ‘법위향상을 위한 서원정진의 21일 기도’, 일요법회 시 법위등급 특강, 법위등급 암송, 마지막에는 성불도 육놀이를 통해 모든 교도들이 합심하여 정진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다.

2-3 교화

① 3040법회 개설과 원기 100년 100명 입교식

서울교당은 역사가 오래된 만큼 교도들 또한 이웃 교당들에 비해 비교적 원로교도들이 많은 편이다. 그러다보니 세대 간의 격차로 인해 젊은 교도들이 일반법회에 안착을 하기가 쉽지 않았다. 기도를 통해 교도 가족들을 꾸준히 교당으로 인도한 결과 3040세대 교도들이 40명 정도로 파악이 되었으나 일요법회로까지 이어지는 데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랐다. 그래서 매월 1회 셋째 주 토요일 3040세대 법회를 별도로 개설하기로 하고 원기 96년 7월 23일 창립법회를 개최했다. 매월 1회 셋째 주 3040세대에 맞도록 법회 운영을 했는데 전부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15명 정도가 법회에 참석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일반법회로 연결이 되어졌다.

매년 가족초대법회를 중심으로 꾸준히 진행되어 오던 입교식을 해 왔지만 특별히 원기 100년에는 ‘100주년을 어떻게 기념하고 보은할 것인가?’하는 질문을 통해 100주년 100명 입교식을 준비하였다. ‘100주년 100명 입교식’은 ‘100년 안에 이 정법회상과 인연된 사람들은 다 내 수첩에 적어 놓은 사람’이라는 대종사님의 말씀에 착안하여, 100주년 안에 수첩의 제자가 되자는 의미로 전개되었으며, 많은 교도님들이 그 의미를 새김과 동시에 가족 친척 또는 주위 인연들이 꼭 100주년 안에 들어왔으면 하는 기대로 100명의 입교자를 만들어 나가기에 부단히 노력하였다. 100명을 입교시키기 위해 ‘100주년 인연불공 21일 기도’를 결제하고 100주년에 함께 할 인연들에 대한 불공과 100주년 안에 입교를 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놓고 염원을 올리는 기도를 올렸다. 그 결과 원기 100년에 외국인 8명 포함 116명이 입교를 하여 원기 100년 8월 23일에 입교식을 거행하였다.

② 이벤트 활용을 통한 교화

이벤트를 활용한 교화로는 대표적인 것은 ‘세월호 304 등불’과 ‘원기100년, 교법 실현 서원 초 100개 올리기’가 있다.

‘세월호 304 등불’ 이벤트는 대각개교절을 앞두고 발생한 ‘세월호 침몰’이라는 재난을 맞아 실시하였다. 여러 가지 초대행사와 문화행사를 취소하고 교단에서도 추모의 기간을 가졌다. 이러한 사회적 교단적 분위기에서 서울 교당에서도 영령들에 대한 추모의 마음으로 노란 연꽃 등 304개를 교도들과 함께 만들어 불단에 올리고 그들을 위해 간절한 해탈천도의 기원식을 올렸다. ‘세월호 304 등불’ 이벤트는 대각개교절을 즈음해서 소태산 대종사의 대각에 대한 기쁨과 더불어 사회의 아픔을 함께 하며 낙원세상을 이루어야 할 원불교인로서의 책임을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했다.

‘원기100년, 교법실현 서원 초 100개 올리기’는 원기 100년대를 출발하면서 ‘나는,

우리는, 교당은, 교단은, 어떻게 원기 100년대를 시작해야 되는가?’에 대한 연마로 시작한 이벤트이다. 원불교의 2세기는 우리의 교법이 더욱 빛나고 대종사님의 말씀이 사회에 더욱 드러나 낙원세상 되라는 염원으로 정전 문구를 붙인 초 100개에 불을 붙이고 원기 100년 신정절에 ‘교단을 위한 21일 기도’를 결제하였다. 100명의 교도가 100개의 초를 밝히고 기도가 끝난 후엔 각자 자기가 밝힌 초를 가정으로 가져가서 초에 써진 정전 말씀이 실현되기를 염원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였다.

③ 지역사회 교화

서울교당은 그동안 지역사회 교화를 위한 꾸준한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지만 아직 실질적인 교화로까지 연결되지는 못하고 있다. 매년 대각개교절을 맞아 은혜의 쌀 20킬로 100포를 한강로 동사무소에 전달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봉공회에서는 매월 1차례씩 독거노인 가정에 반찬을 만들어 꾸준히 전달하는 일을 오래 전부터 해오고 있는데 현재 15가구에 반찬을 만들어 가져다주는 반찬봉사가 계속되고 있다. 원기 101년에는 ‘서울교당 93년사’ 봉정식을 올리는 경사를 맞이하여 용산구청을 통해 철거민에게 이불 기증과 복지사업에 현금을 기부하였다. 이밖에도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모시고 온천관광여행을 다녀오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들을 꾸준히 늘려가고는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기만 하다. 하지만 크지는 않지만 서울교당의 꾸준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이 알려지면서 지난해에는 용산구로부터 그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받기도 했다. 서울교당은 원기 102년 현재 지역주민을 위한 요가교실과 선방도 열었고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당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

III. 교당 교화를 위한 과제와 제언

여기까지 서울교당에 근무한 지난 7년간의 교화 사례를 소개하고 그 안에 담긴 나름대로의 교화 방법을 소개하였다.

그동안 개인적으론 교화에 힘 써 왔지만, 역량이 부족하여 여전히 미흡하고 아쉬운 점들이 많이 있다. 이와 같이 개인적으로 교화를 하면서 느꼈던 한계점과 교화의 과제, 그리고 설문을 통해 수합된 교도 몇 분의 의견을 참고하여 앞으로의 교당교화의 과제와 제언을 제시하며 이 글을 마무리한다.

단, 교화구조 개선에 대한 내용이나 다변화된 미래사회의 교화 전략, 교화단 교화에 관한 내용 등은 뒤의 발표자들이 상세히 다룰 예정이므로 여기에서는 제외하였다.

1. 지역사회 연계

과거의 교회는 지금의 농촌교당이 여전히 그렇듯이 교당이 위치한 그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교회를 펼쳐왔다. 자연스럽게 인정교화의 차원에서 교당과 교도가정 그리고 지역이웃들과의 인적인 교류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함께 이루어졌다. 하지만 현재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 위치한 교당들의 사정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교도들은 교당이 위치한 지역에만 살지 않고 다양한 지역으로부터 유입되고 있다. 교도들은 지리적 위치뿐만 아니라 교당의 프로그램, 교무의 실력, 오랜 인연과 추억 등 다양한 요소들을 판단하여 교당을 선택한다. 교도들이 교당이 위치한 지역에만 살지 않기 때문에 지역과 교당의 연결고리도 약해지는 부분도 있다.

또, 대도시의 경우에는 어디까지를 지역사회로 볼 것인지도 애매하다. 지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시 전체 또는 구 단위와 교류가 가능하지만 인구적인 측면에서 보면 동 단위도 크다. 또, 행정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지만 지리적으로는 가깝거나 행정적으로는 하나이지만 살고 있는 거주민들의 문화와 경제적 수준은 차이가 나는 등의 다양성이 존재한다. 만약 미래에도 이와 같이 인구의 도시집중은 계속된다고 볼 때 도시형 교회에서 지역사회는 행정적 지역, 거리상의 지역, 그리고 교도 분포와 문화적 성향에 따른 인적인 지역을 모두 고려한 복합적 지역 사회일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복합성 때문에 한 교당에서 지역사회를 파악하고 교류를 시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역전체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개별 교당 단위 또는 교당 연합 단위로 복합적 전략을 짤 수 있도록 교구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많은 분석과 연구를 통해 개교당의 지역사회 연계 및 교회 전략을 제시해 주었으면 한다. 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이 재해재난이 발생했을 때 교단 또는 교구 차원에서 교당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관성 있고 신속한 전략을 제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교당에서도 구청, 주민센터 등을 통한 행정적 지역 교류, 동네 이웃을 대상으로 한 홍보 및 소외계층 지원사업 등의 인적 지역 교류, 지역사회 특성(상업지역, 학교, 학원가, 관공서지역)에 따른 문화적 교류 등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 밖에 재가단체인 봉공회, 여성회, 청운회, 청년회도 교단 내부적인 사업도 중요하지만 본래 설립취지대로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전개할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또, 교당에서도 교당을 지역사회에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아야 한다. 요가 명상, 노래교실, 작은도서관, 원학습코칭, 방과후교실, 자원봉사 등 교당을 개방하여 여러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저변확대 교화방식이 필요하다. 이는 지역주민의 원불교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동반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2. 가족교화로 연계

원불교 교화의 과제 중 가장 많이 떠오르는 주제가 가족교화이다. 교당의 입장에서는 가족교화만 이루지면 교화가 한 단계 양적으로 질적으로 급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가족교화가 이루어지면 어린이 법회, 학생 법회, 청년 법회도 활성화 될 수 있고, 교도들의 인생 전반을 신앙과 수행으로 관리하고 단련시키면서 교법 훈련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에 있어서도 가족교화를 하지 못했을 때 가정 내 가치관의 충돌 또는 부조화로 고생하거나, 일생을 원불교의 교법과 예법대로 자신 있게 살다가도 막상 생사의 면 길을 떠날 무렵에는 자녀들의 물이해로 씁쓸하고 쓸쓸한 뒷모습을 남기게 되는 불행이 뒤따르기도 한다.

이처럼 다같이 가족교화가 중요성을 부르짖고 있음에도 현실적으로는 가족교화가 잘 이루어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생각해 보자면, 원불교 교도들은 교화에 있어서는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 가족들을 적극적으로 교당으로 데려오기보다는 인내심을 가지고 나올 때까지 지켜보고 기다리려고 한다. 남의 원 없는 일을 권하지 말라든가 스스로 공부를 잘해서 성과를 보이면 자연히 사람들이 알아보고 교화가 될 것이라는 논지의 스승님의 말씀들이 있어서 그런지도 모른다.

하지만 가족교화를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가족들만큼은 적극적인 태도로 교화해야 한다. 그렇다고 적극적인 태도로 바꾸라고 막연하게 정신자세를 강조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방법론이 필요하다. 우선 교도들의 입장에서는 ‘가례실천’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상장과 제사 뿐 아니라 출생, 생일, 이사, 취직 등 중요한 경사와 애사, 조심할 일과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마다 진리적 신앙과 연결하여 교법과 인연을 맺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교단의 입장에서는 이런 가례실천을 권장하고 다양한 환경에서 가례를 실천할 수 있는 형식과 도구 그리고 콘텐츠들을 개발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교당의 입장에서는 가족들을 교당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가족초대법회’ ‘일원상합동봉불식’과 같은 이벤트와 ‘며느리 공부방’ ‘부부상담소’ ‘아버지 교실’ 등과 같은 인연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3040 법회’와 같이 세대별 법회를 개설하는 것도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교단적으로도 가정교화에 관심을 갖고 교당에서 가정교화에 접근할 수 있는 관련 정책과 콘텐츠를 개발해 주길 희망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도들을 교법으로 무장시켜 교법의 생활화를 실천하게 하는 것이다. 결국 교도 각자가 신앙과 수행으로 실력을 갖추어서 가족들의 존경을 받으며 가족들을 감화시켜 교당으로 이끄는 것이 원불교의 교화의 정도이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가족이 기도하길 바랄 수 없고 내가 법회참석을 소홀히 하는데 가

족이 법회에 참석하기 바랄 수 없다. 다만, 내 신앙과 수행의 실력이 가족에게 전해 지도록 하는 형식적 노력은 필요하다. 일례로 개인적으로 조석심고를 잘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원상 봉안식’을 하고 눈에 띠는 자리에 불단을 아름답게 조성하며 때로는 소리 내서 하는 설명기도로 가족을 위한 염원 소리가 들리게 하는 등의 형식들이 가족교화로 이어지는 매개체가 된다. 교당에서는 교도들이 교법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실천위주로 훈련과 법회를 구성하는 노력을 하는 것은 물론 가정교화를 위한 아이디어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직적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던지 교도들 간에 회화로 사례를 공유하는 장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 한 교당에서의 여력이 부족한 경우 교단이나 교구의 차원에서의 지원과 프로그램을 운영해 줄 수 있는 체계적인 연구와 시스템이 필요하다.

3. 법회 개선

현재 원불교 교화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법회운영이다. 그러나보니 많은 재가 교도들이 교화 발전을 위해 요구하는 것이 법회형식과 문화에 대한 개선이다. 그런데 법회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법회에 대한 교도들의 요구도 다양하다.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 요구사항이 상충되는 부분도 있다. 이러한 법회와 관련한 복합적인 요구들을 합리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이 앞으로의 교화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법회에 대한 교도들의 요구 중에 점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법회를 통해 ‘힐링’을 받고 싶다는 것이다.

이 ‘힐링’의 의미를 더 풀어서 말하면 첫째, 휴식하고 싶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종교에서 전통적으로 지향하는 ‘영적인 휴식’은 물론 ‘육신의 휴식’을 향한 요구도 강하다. 즉, 좋은 말씀과 신앙의 체험으로 마음이 정화되고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법회의 본질적인 내용 못지않게 복잡한 생각과 활동으로 긴장할 일이 없는 편안한 법회의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요구는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사회 환경이 원인이다. 앞으로 ‘휴식’할 수 있는 형식과 내용의 법회를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이러한 휴식에 대한 욕구가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다른 활동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설법’만 들었으면 좋겠다는 교도들의 요구이다. 교도들이 능동적인 참여보다는 수동적인 참여를 원한다는 뜻이다. 또 ‘설법’의 내용에 있어서도 복잡하고 전문적인 교리해설보다는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공감되는 실제 체험에 바탕한 쉽고 명확한 설교를 원한다. 이러한 요구를 잘 수용하여 새로운 설교패턴을 개발하는 것도 앞으로의 법회를 개선하는 방향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그렇다고 교도들의 요구대로 ‘설법’만 있는 기독교식 법회를 지향하자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원불교 교법의 본질은 ‘훈련법’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법회에 ‘경강’ ‘감상담 발표’ ‘법의문답’을 배치하고 최종적으로 훈련으로 연계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원불교 교법의 정체성을 계승하기 위해서이다. 초기의 원불교 법회기록을 보면 오전에 법회를 보고 오후에는 교화단회를 통해 하루 종일 수양, 연구, 취사의 방면으로 단련하고 동 하선의 훈련으로 연계시켜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교도들도 이러한 원불교의 정체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오래된 교도일수록 설교 위주의 일방적인 법회가 아니라 ‘법의문답’이 이루어지는 소통하는 법회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법회는 교도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법회 형태라는 점에서 앞에 말한 휴식을 지향하는 법회와는 상충된다.

이렇게 상충되는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교당 내에서 전체모임은 설법위주의 법회를 운영하되 교화단 또는 소그룹을 통해 훈련위주의 심화법회를 구성한다던지 아니면 대형교당에서는 설법위주의 법회를 운영하고 소형교당에서는 훈련위주의 법회를 구성한다든지 하는 방안이 필요할 듯하다. 여기에 대해서 교화정책연구소의 적극적 연구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힐링’의 다른 의미는 관심과 긍정의 위로를 받고 싶다는 것이다. 현대인은 갈수록 외로운 존재가 되고 있다. 직장공동체에서 충분한 인간적인 교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가족과의 교류도 갈수록 단절되고 있다. 법회를 위해 교당에 왔을 때 따뜻한 관심과 긍정적인 위로를 받고 싶어 한다. 원불교 법회에 대해서 많은 교도들이 지적한 부분이 ‘새로운 교도들이 와도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다. 물론 교도들에 따라서는 지나친 관심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에 있어서는 새 교도들이 교리와 문화가 낯설고 기존 교도들의 무관심으로 적응하기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다. 정감 있는 교당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신입교도들의 경우에는 담당하는 교도들이 있어서 적응하는 기간 동안 적응을 돋는다든지 등의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 또, 신입교도들이 원불교 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더 많이 개발하여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 또는 신입교도 훈련을 충실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교도들의 요구가 다양해져 법회 식순이나 법회 문화에 대한 요구도 다양해지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 시대와 상황을 반영하는 창의적인 법회 형식의 적극적인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

4. 출가교역자 자질 향상

교화와 관련해서 재가 출가 상관없이 출가교역자의 자질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정직성, 성실성, 근검함, 재색에 투명함과 같은 덕목들은 너무나도 기본적인 자질이라 논외하고 교도들이 출가교역자에게 가장 크게 요구하는 것은 전문성일 것이다. 이 전문성도 교도에 따라 관점의 차이는 있는데 우선은 원불교 교법과 수행, 신앙에 대한 전문성이다. 그냥 재가교도들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정도가 아니라 최소한 한 단계는 확연히 높은 실력을 출가교역자가 갖추고 이끌어 줄 수 있기를 원한다. 또, 요즘 들어 강조되는 것이 설교의 능력이다. 법회에 와서 설교를 듣는 시간만큼은 그 말씀 속에서 삶의 길이 명확하게 느껴지고 치유를 받기를 원한다. 상담을 통해서 사리를 명확하게 가려주는 통찰력이 있다면 더 좋을 것이다.

또 교도들이 말하는 다른 의미의 전문성은 세상에 대한 상식이다. ‘시대를 따라 학업에 종사하여 학문을 준비’하라는 소태산 대종사님의 말씀처럼 일반인보다 나은 세상에 대한 전반적인 상식과 어느 한 부분 깊이 있는 지식을 갖고 있기를 원한다. 여기에는 출가교역자에게 충분한 지식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과 함께 ‘말이 통하는 교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통의 요구가 있는 것이다. 즉, 교도들과 소통하고 교도들의 의견을 수용할 자세에 대한 요구도 함께 있다고 볼 수 있다. 출가교역자의 자질들에 대해선 논하자면 끝이 없을 것이므로 가장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전문성’을 놓고 몇 마디 한 것으로 마치겠다.

그러면 어떻게 출가교역자의 자질을 향상시킬 것인지에 대해 말하자면, 이것은 결국 교역자양성과 재교육이라는 교육의 문제로 연결된다. 다만 여기서 현 교육의 세부적인 사항을 놓고 갑론을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큰 틀에서 말하면 출가교역자의 자질에 대한 기준과 목표치를 명확하게 해야 할 것 같다. 목표치와 기준이 있어야지 무조건 자질이 부족하니 교역자로서 자질을 높이라고 말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런데 목표치와 기준을 설정하려다 보면 교역자의 자질이라는 것이 결국 기본에 있어서는 신앙과 수행의 실력, 신심, 공심, 공부심과 같은 추상적인 것이라서 정량화하고 수치화시키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 법 있는 스승님들의 말씀을 기준으로 정하게 되는데 이 또한 추상적인 면이 있고 모두가 공감하기란 어렵다. 결국에는 집단지성이 필요하다. 출가교역자의 자질의 기준과 목표에 대해서 충분한 인원이 모여서 충분한 시간동안 토론하고 연구하며 때론 사회과학적인 도구를 활용하여야 한다. 그래서 최대한 그 목표와 기준을 객관화 구체화 할 수 있어야 한다. 앞으로 이 문제는 몇몇 기관이나 연구소 차원에서 할 것이 아니라 교단적인 차원에서 원불교 2세기를 열어가는 소중한 전환점으로 생각하고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5. 재가교역자 역할 확대

출가 중심의 교당 운영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재가와 출가가 함께 역할을 분담하여 교당을 이끌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가교역자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

원불교는 창립에서부터 교리상에 재가와 출가의 차별을 두지 않았다. 재가와 출가의 역할에 어느 정도 구분은 있었지만 역할의 경계는 없었고 이 구분마저 고정적인 것은 아니었다. 최초의 수위단은 재가, 출가가 함께 편성되어 있었다. 또, 초기에는 출가가 지부장(오늘날의 교도회장)을 하기도 하고 재가교도가 교무를 하기도 하는 등 역할이 유동적이었다. 교당 운영만 놓고 보더라도 공문의 결재 등 행정상 최종 결재권이 재가인 지부장에게 있었고, 주무와 순교는 교당 살림과 교화를 능동적으로 앞장서서 책임졌다. 그러나 현재의 원불교는 어느덧 재가와 출가의 역할 구분이 굳어지고 출가교도에게 권한이 집중되었다. 이것은 원불교의 근본 교법정신과도 맞지 않다.

더욱이 새로운 출가자의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의 출가가 운영전반을 다 책임지는 형태로는 교당과 기관의 운영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재가교역자의 역할 확대는 필연의 선택이다.

재가교역자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대의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최종적인 형태는 재가교역자 중심으로 교당과 기관의 운영을 책임지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교당마다 규모도 다르고 교도출석수 부터 교도들의 법위 분포까지 상황이 다르므로 적절한 재가교역자의 숫자와 역할이 똑같을 수는 없다. 가령 소규모 교당은 재가교역자가 큰 역할을 안 해주더라도 교무 혼자의 역량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그러나 규모가 커질수록 재가교역자의 숫자와 역할이 더 요구된다. 또, 필요한 재가교역자의 역할도 규모에 따라 조금 달라진다. 비교적 작은 규모에서는 주무와 순교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규모가 더 커지면 대중의 뜻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교화협의회와 같은 협의체가 반드시 필요로 되고 주무와 순교의 역할은 이 협의체내에 총무 분과, 교화 분과 등 분과를 설치하여 좀 더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에 교당에서 따로 주무와 순교의 역할을 찾기 힘들다. 이처럼 적절한 재가교역자의 구성과 역할수행이라는 것은 교당 상황에 따라 다양한데 현재 교당의 재가교역자 사령은 형식적인 규정에 따른 관행으로 또는 각 교당의 교무의 감각과 재량에 따라 그 규모와 구성이 결정 되고 있다. 교규에 명시된 재가교역자의 역할도 단편적이다.

재가교역자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재가교역자가 교당 운영과 교화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 재가교역자의 역할에 대해 좀 더 현실적이고 세밀하게 정

의해 줄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서는 교당의 규모, 특성과 발전단계에 따라 필요한 재가교역자 구성과 규모 그리고 역할을 제시하고, 교당이 다음 단계로 성장할 때 기존의 재가교역자 구성과 역할분담을 어떻게 다음 단계로 전환할 것인지에(예를 들어 주무 순교 체제에서 교화협의회 체제로의 전환, 또는 회장단의 역할 변환 등) 대한 매뉴얼도 교회전략차원에서 연구되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